

Robert Vannoy 박사 , Kings, 강의 11

© 2012,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구속사, 열왕기상 17

장 열왕기상 17:7-24

좋아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24절로 갑시다. 이것을 읽어서 본문을 염두에 두도록 합시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고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곧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물동이에 물을 조금 가져다주시겠습니까?' 그녀가 그것을 받으려 할 때 그는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나는 나뭇가지 몇 개를 모아 집으로 가져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집에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네 소유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의
 가족이 먹을 양식이 매일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밀가루 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함이었더라

“ 얼마 후에 집주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숨을 멈췄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러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를 그녀의
 품에서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동거하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얹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로
 돌아왔고 그가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 에서 나오는 여호와와 말씀이 진리인 줄 아나이다’

24 알겠습니다. 열왕기상 17:7~24; 주제는 “교체 세트의 작동 원리”
 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17장 7-16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첫 부분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삼 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더라.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제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실 때,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엘리야 때와 같이
 교체의 원칙이 다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한 언약의 의무와 특권에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원칙의 개념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거부하는 언약의 의무와 특권에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일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으며, 예수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소식을

듣지 않는다면 그 일이 자신의 시대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엘리야가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 으로 이주함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24절까지 세 가지에서 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그릿 시내에서 사르밧으로 이주한 것의 의미입니다 . 우리는 2-6절에서 엘리야를 숨긴 것이 계시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것에 대한 리뷰일 뿐입니다. 그 의미는 예언자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말씀의 집행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계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백성과는 별개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엘리야를 부양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의 보존은 그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은폐는 그러한 의미에서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8절과 9절). 명령과 함께 엘리야는 자신의 위치를 더 은밀한 그릿에서 사르밧 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르시되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노니

엘리야의 이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그릿 시냇가에서 , 둘째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위치를 바꾸라고 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경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치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행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위치도 바뀌게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르밧과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설교할 때 엘리야의 상황과 엘리야의 개인적 필요만을 고려한다면 그 점을 완전히 놓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행정에 관한 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이사한 것의 의미는 첫째, 시냇물이 마를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셨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새로운 지시를 끈기 있게 그리고 신실하게 기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 때때로 그것은 주어진 강조입니다. 그가 참을성 있고 충실하게 새로운 지침을 기다렸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성품과 신실함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단순히 시냇물이 마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셨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냇물의 흐름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개울의 물의 흐름이 엘리야를 떠나게 한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엘리야를 공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FB Meyer's Book on Elijah 엘리야의 상황을 보는 생각은 종종 설교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설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FB 마이어입니다. FB Meyer는 엘리야에 관한 작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밤 천막을 치고 움직이는 구름과 트럼펫이 내일 치라고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운명을 위해 당신을 교육하는 현명하고 충실한 사랑의 지시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만 믿으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에게 유용성과 아름다움의 최고 완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건과 조건의 조합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전지적 지식이 모두 당신의 손에 닿는 곳에 있었다면 그들은 당신이 선택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마이어의 책 29 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엘리야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한 예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시냇물이 말랐을 때 그것은 엘리야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을 것이지만,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먼저 단순히 시냇물이 마르고 그가 가르침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찾아간 사르밧의 특정 과부가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과부보다 엘리야의 방문을 받을 자격이 있을 정도로 품성과 경건한 자질을 가졌다는 제안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이어는 “이스라엘 땅의 많은 과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 안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치시고 멀리 떠나신 것은 임의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녀는 성격의 자질, 더 나은 감사의 실, 영웅주의와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자매애와 구별되고 그녀를 선지자의 보헤미안 여주인이자 아버지의 은혜로 그를 기쁘게 운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진실의 요소가 있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존귀케 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모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조점은 엘리야가 오기 전의 여인이 아니라 그녀가 해야 할 일과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한 것에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의 위치에 관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그릿 으로 가서 거기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곳에서 너희를 먹이라고 하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로 갈 때 주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까마귀에 대한 명령과 여자에 대한 명령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명령에 순종하면 따라서 그녀의 응답의 진정한 근거는 여성의 타고난 자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의 구속사적 설교는 그 특성상 인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신 중심적이다. 이제 극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신은 그것이 인간 중심적 방향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극단적임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 설교는 그

본질상 적용하기 쉽습니다. Theocentric은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적용입니다. 예배와 찬양에 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비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적 설교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가 지지를 받아야 하고 이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까마귀와 시냇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양육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간 도구를 선택하시면 그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우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그릿에서 사르밧으로 이전할 때 시행된 대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움직임의 의미는 단순히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특정 과부의 특성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사르밧에 있는 특정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르밧에 밀줄을 굿습니다! 9절에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사르밧은 시돈에 속했습니다. 시돈은 이세벨이 태어난 도시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시작된 바로 그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시돈은 구속의 계시 역사에서 다른 시대의 애굽, 바벨론, 로마와 같았습니다. 참 믿음에 대한 반대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은 그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대립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의 심장으로 가십시오. 내가 거기에 내 말씀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보십시오.

과부에게 주신 약속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할 일을 내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그릇 에서 사르밧으로의 재배치의 의미에서 먼저 교체 세트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과부에게 주어진 명령과 약속의 의미에서 그것을 봅니다. 과부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뭄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이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 가뭄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이하를 보면 “그가 사르밧에 이르러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그가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을 조금 가져다 주겠느냐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그는 ‘그리고 빵 한 조각을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몇 개를 모아 집으로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묻습니다. 그것은 13절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네 말대로 하되 먼저 네 소유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니라 그가 마지막 음식을 그에게 청하니 .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계속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방을 넘어 구속사로 나아가기 여기서 우리는 모방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을 하는 신자와 하나님의 종과의 단순한 행위를 분명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들이 가진 마지막 것을 우리에게 주도록 요청합니까?

여기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특정 시간과 상황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여기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올 때 한 사람의 전 생애와 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 여자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동일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한 그 요구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규례가 있는 신명기 26장으로 돌아가십시오 .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고 주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모든 것을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요구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부양하는 임무도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요구는 약속과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구는 약속과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는 동시에 특권입니다.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시대에 유효한 식사와 기름 공급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찾은 기적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복제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언약의 요구와 언약의 약속이 이 이방 여인의 삶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할 때 언약의 요구와 언약의 약속이 이 이방 여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언약의 축복이 그녀의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을 때 그녀는 믿든지 안 믿든지 반응해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그 여자와 그의 가족이 먹을 양식이 매일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밀가루 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그릇 에서 사르밧으로 이주한 것의 의미 와 과부에게 주어진 요구와 약속의 의미에서 교체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설교 중 과부의 아들의 죽음

셋째,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의 예언 사역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17-24장에서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다시 당신은 그런 종류의 내러티브에 대해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것은 주로 예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모범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도덕적 교훈을 찾고 있습니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정 생활의 시련과 배울 점들”이라는 제목 아래 17절부터 24절을 논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4가지 포인트: 하나, 만족. 해설자는 “그룹이여, 우리는 완전히 궁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료품 저장실은 맨손입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 생계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계십니다. 천개의 언덕에 있는 가축; 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공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한 그는 제시간에 그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통의 바닥이 오늘 굵혔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내일의 필요에 충분할 것입니다. 염려는 소용이 없으나 믿음의 기도는 소용이 있느니라.” 그래서 만족.

두 번째는 화를 낼 때의 온유함입니다. 곤경에 빠진 과부는 자기

집에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경솔하고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고 내 아들을 죽이러 오셨나이다.” 이 부당하고 부당한 말은 선지자를 놀라게 하여 쓰라린 대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순히 “당신의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제적인 경건과 화를 낼 때의 온유함이 더 필요합니다.

셋째, 성스러운 빛의 능력입니다. 이 여성의 삶 어딘가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녀의 모든 기억을 왜소하게 만드는 어두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예리한 고뇌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교훈: 어떤 사람이 숨겨져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 양심이 있다면 잊으려는 모든 노력이 언젠가는 소용이 없게 될 것임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쓰라린 상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18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의 특징은 생명의 영 곧 부활의 생명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빛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주는 비결은 엘리야가 아들을 살릴 때 영적인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영성을 부여하고 능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 모든 점에서 만족, 성가신 일을 당할 때의 온유함, 거룩한 삶의 능력, 빛을 비추는 비결,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삽화가 이 구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예입니까? 그것이 그 구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삽화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이 이 이야기의 의미는 당신이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본문을 설교하고 있고 이 본문을 어떤 진리의 예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구속사 운동의 맥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구속의 계시의 진행에서 어떤 진행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 소년의 죽음이 엘리야와 과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그녀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고 밀가루와 기름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녀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도시와 다른 곳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안전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소년의 생명을 취하셨는가? -- 그녀의 죄? 그러나 그녀의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당혹스러운 문제를 제시하며, 그것은 과부와 엘리야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왜 소년 의 생명을 취하셨습니까 ? 왜 그 특정 소년? 엘리야나 과부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 과부가 엘리야에게 묻되 네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나이까?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집에 있는 엘리야와 연결합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엘리야와 함께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동거하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소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문제는 이유입니다.

과부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그녀의 죄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임재로 인해 자신의 죄가 주님의 주의를 끌었다고 느꼈습니다. “네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 내 아들을 죽이러 왔느냐”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심판한 그대로 그녀를 심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같이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심판이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엘리야 탓으로 돌리고 엘리야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엘리야에 의해 하나님의 주의를 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엘리야는 생명을 약속했지만 이제 그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순종에 대한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과부의 대답은 그녀가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먹인 과부에게 봉사 하지만 엘리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는 그녀에게 실제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8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 혼자 과부와 비슷한 어조로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과부에게도 당신이 그 아들을 죽게 하여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여기에는 순종이 있었지만 심판이 있었습니다. 봉사의 삶, 그러나 죽음; 생계를 약속하지만 소년은 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예언 사역은 이방인 과부를 섬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구속적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예언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녀의 필요에 봉사하기 때문에 이교도 과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에는 진전이 있습니다. 교체 및 작동 원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엘리야는 과부를 돌보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과부를 섬기는 예언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망인은 이제 관심의 중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님은 그녀에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전에는 엘리야가 내러티브의 중심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섬기는

과부는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를 부양하고 부양한 것은 과부였습니다. 가루와 기름은 주로 엘리야를 지탱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과부는 그 마련의 혜택을 함께 받았지만 초점의 중심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년의 죽음을 통해 주님은 엘리야가 과부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과부의 삶에 직접 손을 내미십니다.

소생된 소년 최종 결과는 소년이 소생된 후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주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보세요, 그 결과입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섬기면서 그녀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통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신실함에 대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은 두 가지 일을 했다. 첫째, 그것은 여자의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처음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녀는 엘리야와 그의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일이 명백히

모순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녀는 그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약속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네 아들을 죽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충격은 두 가지 일을 했다. 그것은 여자의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씨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소년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부활 그래서 21절에서 그는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생명을 그에게로 돌이키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생계에 대한 약속(14절)이 그 기도의 기초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이교 세계의 심장부에서 일어났음을 주목하십시오. 그 효과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분명합니다

. 주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자이다. 그는 거룩하지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참되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풍성한 계시는 이야기라는 수단을 통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어졌습니다.

교체의 원리는 엘리야가 그릿 에서 사르밧으로 이주하여 원수 진영의 중심부로 간 의의, 과부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의 의의, 예언 사역의 의의에서 볼 수 있다 . 과부의 삶에서 엘리야. 나는 이 방법의 예를 통해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an Knechtle 이 각본을 맡은 작품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